

한계노동력 경제활동참가 형태에 대한 연구

윤 희 숙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A Study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Marginal Labor Force

Heesuk Yun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핵심주제어: 한계노동력(Marginal Labor Force), 경제활동참가(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 JEL 코드: C2, C6
- 논문투고일: 2005. 3. 2 • 심사완료일: 2005. 6. 22

ABSTRACT

This paper intend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which groups should receive particular attention from policies aimed at raising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A detailed portrait of the diversity of non-employment is presented with description of the extent the under-represented groups stayed in situations of labor inactivity. Also, once in employment, how these groups move from one sector to another is a main interest in the analysis.

Using longitudinal data (1998-2002) constructed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I followed individuals over a five-year period and analyzed how frequently inactive persons enter the labor market and how they change industries and statuses.

경제활동참가 증진을 위해서는 노동 시장에서의 참여나 잔류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인구그룹들의 이질적인 노동시장 참가 양태에 대한 관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로부터 구성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경제활동상태 간을 이동하는 양태, 지속 기간, 산업 간 및 종사상지위 간 이동방향 등을 한계노동자그룹별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빈도를 다항로지트 분석(Multinomial logit)을 통해 경제활동상태 변화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1. 서론

핵심 거시경제지표로서 노동력에 대한 경제학의 관심이 모아져온 지점은 실업률이다. 즉,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인구의 규모가 한 경제의 노동력 활용에 관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다고 간주되어 왔으며, 경제활동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인구 그룹인 비경제활동인구에 관해서는 분석의 의의가 그다지 인정되지 않아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실업률 감소라는 기존의 정책목표와 함께 경제활동참가 증진이라는 목표 역시 강조되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즉, 경제활동인구 수 대비 취업자 수인 취업률을 높이는(실업률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가능인구 수 대비 취업자 수인 고용률의 제고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OECD Employment Outlook*(2003)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르는 인구비중을 경제의 비활동성(*inactivity*)으로 규정하고 이를 감소시키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실업대책과 달리 고용증가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실업대책의 경우,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실업이라는 확고한 믿음의 근거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

직자의 인적자본이 낭비되는 동시에 이들을 보조하기 위한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었다. 고용증가정책의 경우에는 실업대책만큼 명확한 정책 추진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선 자발적으로 고용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할 필요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정책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현실적인 필요의 증가 때문이다. 1990년대 동안 OECD 국가들에서의 실업정책 추진으로 실업률이 감소되었으나, 이러한 결과에 안주할 수 없었던 것은 노동시장의 참여자가 적다는 점이 새로운 고민거리로 출현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비중 감소의 문제점은 고령화 추세와도 관련이 깊다.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노동인구가 비노동인구를 부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양률(*dependency rate*)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OECD 국가의 경우 현재 4:1에서, 2035년 2:1의 비율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제도나 복지수당 등 노동인구가 져야 할 부담 역시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고용을 증가시켜 연금제도에 기여하는 인구비중을 확대하고 비경제활동인구를 위한 복지비용을 줄이는 것이 될 것이다.

즉, 실업수당 등 실업자를 보조하는 비용보다 조기은퇴수당이나 고령인구 보조, 장애수당, 편부모수당 등 비경제활동인

구에 대한 광범위한 보조수단들이 초래하는 비용이 더 큰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각종 수단으로 인해 근로의욕이 감소하게 되는 점 역시 비활동성 함정(inactivity trap)을 형성시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활동참가 증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정책 추진의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그룹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확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빠른 정책효과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가장 쉽게 참여시킬 수 있는 한편으로 비경제활동에서 경제활동으로 움직일 여지가 큰 인구그룹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각 국가의 고용률은 인구그룹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OECD 국가 중 아일랜드의 경우 생산가능여성의 고용률이 80%인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 42%에 불과한 예 등은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국가 간에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전반적인, 또는 인구그룹별 비활동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나, 이와 함께 한계노동력 내 인구그룹 간에 비활동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역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그룹 간 이질성(heterogeneity)의

문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정책 대상의 결정과 더불어 정책 추진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룹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룹별로 노동시장 정착도 수준이 상이하다면, 정책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수단으로서는 개별 그룹에 맞게 고안(customized)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유인을 증대시키기 위해 근로연계수당을 증가시키거나 소득세를 감소시키는 등 비경제활동인구에 남아 있을 유인을 줄이는 것이 주된 방향이며, 여성그룹에 대해서는 탁아서비스 등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일반적인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는 미취업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한 접근기회를 제한하는 한편, 이미 이러한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경제활동참가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 그룹을 파악하고 각 그룹의 이동성향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여성, 청소년(youth), 고령층, 장애인 등 비활동성이 높은 그룹, 즉 한계노동력(marginal labor)을 주 파악대상으로 설정한 후 각 그룹의 참가율과 이동성향 등에 대해 국가별 특성을 추출하여 정책수단

을 고안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고 있다.

여기서 비활동성이 높은 그룹이란 노동시장에 대한 정착도(labor market attachment)가 낮은 그룹으로서, 한계(margin)의 의미는 통상 남성 청중년 노동력(prime age male labor)을 주 근로자그룹(main worker)이라 할 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노동력이다. 따라서 여성, 고령, 청소년그룹으로 지칭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거시지표로서의 실업률이나, 복지정책을 위한 실업대책 등에 경제이론적·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이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증진이라는 이슈에 관해서는 고령 근로자 고용증진을 위한 제도 도입과 육아보조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등에 한정된 논의들이 있어 왔을 뿐 사회의 주 관심 영역이 이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OECD 국가에서 동일한 이슈가 제기된 배경이 고령화로 인한 부양부담 증가와 근로의욕 저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의 시작을 제안하는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있다 하겠다.

본 보고서는 통상 노동시장에 대한 정착도가 높다고 상정되는 주 근로자그룹을 제외한 한계노동력그룹을 적절히 구획한 후, 각각의 경제활동상태와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나라 노

동시장의 비활동성 정도와 양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비활동성의 양태라 함은 같은 수준의 비활동성이라 하더라도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진입과 퇴출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와 구성원들이 진입과 퇴출을 활발히 교대하는 경우, 같은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다 하더라도 경제의 동작성(dynamics)은 전혀 다른 수준일 것이다. 따라서 경제의 전반적인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활동참가율 수준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비활동성의 양태 역시 관찰해야 한다.

또한 비활동성의 성격에 따라 이에 대한 노동시장정책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OECD 국가의 경우 일부 그룹이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잔존하면서 움직임이 없는 경우를 비활동성 함정(inactivity trap)이라 정의한 후, 이러한 비활동성 함정이 상당 정도 존재하고 있다는 진단하에 한계노동력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무엇보다 이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으로 움직이게끔 하려는 수단이 될 것이며, 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시장에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그런데 비활동성 함정이 주된 문제가 아니라면, 즉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의 영역을 넘나드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

데 전반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면,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이들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는 데, 즉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조건들을 완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경제활동참가율 수준과 함께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하는 움직임 역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영역 간의 움직임의 관찰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OECD에서 정의한 한계노동력은 단순히 주 노동력그룹인 남성 청중년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을 의미하는데, 이들 그룹은 비활동성이 높아 노동시장 외부에 머무르려는 성향이 강한 그룹과 노동시장으로부터 쉽게 퇴출하는 그룹으로 구성될 것이다. 쉽게 퇴출한다는 것은 취업상태가 종료되었을 경우 실업인구에 진입하기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퇴출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구성요소로 지적된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전반적인 실업정책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며, 이로 인해 실업률 수치가 실제로 체감되는 경기변동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김대일[2000c]). 실직할 경우 실업자로 전환하지 않고 곧바로 비경제활동인구로 퇴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특정그룹에서 더 빈번하다면 실업이라는 현상 자체가 경제활동참가가 활발한 일부 그룹에 국한된 현상일 수 있으며, 실업정책 역시 한정된 인구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실업률이 갖는 의미 자체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실업정책 역시 이러한 한계적 참가자들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률을 높인다는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 노동시장 외부에 머무르는 그룹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목표와 노동시장을 자주 넘나드는 그룹을 시장 내부에 머무르게 하는 목표 등이 여타 선진국에서 인식되고 있는 정책목표라면, 우리나라의 경우 적절한 실업정책의 방향정립을 위해서도 비경제활동과 경제활동 간을 쉽게 이동하는 그룹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 추가적인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본고에서는 우선 최근 연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수준을 통해 각 시점에서 노동시장 외부에 머무르는 인구비중과 노동시장 내의 실업비중을 파악하고, 각 경제활동상태 간을 이동하는 양태를 그룹별로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빈도를 경제전반에 걸쳐 그리고 그룹별로 관찰하여, 한계노동력그룹으로 분류되는 인구그룹의 경제활동패턴을 주 동자그룹과 비교하여 파악할 것이다.

또한 변화의 빈도와 함께 각 그룹별로 경제활동상태가 변화하는 방향과 형태를 파악하려 시도할 것이다. 경제활동상태를 주 36시간 이상 노동, 36시간 미만 노동, 일시휴직, 실업, 비경제활동 등으로 나누어 주된 이동방향을 확인한 후, 각 영역을 이동하는 패턴을 범주화하여 다항로짓 분석(Multinomial logit)을 통해 경제활동상태 변화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경제활동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을 그룹별로 관찰하여 지속기간과 상대적 길이에 그룹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려 한다. 이는 지속기간 역시 비활동성을 측정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기도 하나, 이미 OECD 국가에서 생성된 자료와 비교 가능한(commensurate) 형태의 수치를 통해 개략적인 비교를 수행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는 노동시장 내부의 이동방향과 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의 노동시장 진입시 진입방향을 관찰할 것이다. 종사 산업과 지위 등에 생기는 변화는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변화로 인해 경제구조와 개인 간의 관계가 재설정되는 것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산업/지위상의 연속성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를 나타내기에 개인의 인적자본이 경제활동상태 변화로 인해 단절되어 누적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정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노동력 각 그룹이 노동시장에 잔류시나 진입시 산

업 간, 종사상지위 간 이동의 방향과 정도를 관찰하면서 주 근로자그룹과 한계노동력그룹의 차이를 추출해낼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구조 변화가 각 그룹에 불균등하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관찰결과와 함의를 제시하려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최근 연도 동안의 월별 패널을 통해 동일한 개인이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경로를 추적할 것이다.

II. 한계노동력의 의미

노동-여가 선택모형의 노동공급자들은 확률적인 요소들에 의존하는 노동시장 참여시점에서 개인 간 차이를 가질 뿐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인구그룹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0%라 하는 것은 40%의 구성원이 항상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60%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룹 내 모든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했다 퇴출하며 교대하는 과정을 한 시점 기준으로 측정할 때 40%의 구성원이 노동시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사실상 노동공급결정의 원형(prototype)으로 통용되어 왔는데, 이에 따르면, 노동시장에 대한 정착도(attachment)가 낮은 근로자그룹이라는 의미인 한계노동력의 개념 자체는 독립적

인 그룹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노동시장 바깥에 남으려는 성향이 강한 그룹을 노동시장 내로 포섭해내려는 정책적 노력에서 상징하는 한계노동력그룹은 이러한 이론틀로 설명하기 어렵다.

노동시장 정착도의 차이를 설명하기에 보다 적당한 가설은 동일한 인구그룹 내에서도 선호체계나 효용함수의 차이, 비시장 활동에서의 생산성, 또는 인적변수에서 기인한 기대소득의 차이에서 노동공급결정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Ben-Porath(1973)는 노동-여가 선택모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1960년대 센서스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비경제활동인구 중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의 비중을 구했는데, 남자의 경우 86.4~97.4%, 여자의 경우 63.4~8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 취업경험에 관한 문항에서 과거시기를 10년으로 한정할 때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 중 1/4~1/3의 남자와 1/2~3/4의 여자가 일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 가설에 의하면, 지난 기와 현재의 노동시장 참여 결정은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 간의 이동(turnover)이 빈번할 이유는 크지 않으며, 동일한 인구그룹 내에서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큰 일부의 사람들은 항상적인 비경제활동인구로 잔존할 것이다.

통상 노동시장 내에 남으려는 성향이

약한 그룹을 지칭하는 ‘한계노동력’을 굳이 노동-여가 선택모형으로 해석하자면, 노동시장으로의 그리고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진입과 퇴출이 그룹성원 간에 교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지 해당그룹의 노동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일 것이다. 반대로 성원 간 이질성에 무게를 두는 가설의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성향이 적은 성원들의 비중이 높은 인구그룹을 한계노동력그룹으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분리된 두 개의 개념 규정이 뚜렷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긴 하나, 분명 두 가지의 의미가 혼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OECD가 경제활동인구 확보를 위해 그룹 간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에 주목하는 한편으로, 이동성(turnover rate) 역시 중시하고 있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책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비활동성 함정(inactivity trap)이 크게 존재하는지, 노동공급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활발한 교대(turnover)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 즉 한계노동력그룹의 구성형태 자체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활동성 함정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인데, 이는 결국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가설 중 어느 것이 각 나라의 구체적인 상황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한계노동력그룹으로 는 일반적으로 청중년 남성근로자그룹을 제외한 여성, 고령, 청소년그룹이 꼽히는데,¹⁾ 본고에서는 이들 그룹 각각의 경제활동수준과 이동성의 정도, 노동시장 부문 간 이동의 정도와 경로 등을 상세히 살펴보려 한다. 추가적으로 노동시장 정착도에서 이질적인 그룹으로 분리하기는 어려우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있어 다른 한계노동력그룹과 상당히 유사할 것이라 사료되는 저학력 근로자그룹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중 현 시점에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고령인구그룹이다. 경제활동인구의 확보가 시급한 국가의 경우, 이는 상당한 규모의 노동력 풀로서 관심의 대상이며, 경제활동인구의 확보가 그다지 시급하지 않다 하더라도 고령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냄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복지비용의 감소효과로 인해 이들 고령인구의 노동시장행태를 분석하는 것은 근자에 들어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에 관해서는 단순한 표준패턴이 일률적으로 상정되곤 했는데, 일정한 나이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한 후 은퇴

하고 경제활동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정이 그것이다. 고령인구의 은퇴시기 결정에 관한 연구들은 이러한 표준적 가정에 기반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통상 최초의 은퇴 결정 이후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고령인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행된 고령인구 노동력에 관한 연구들(Burtless and Moffitt[1985], Ruhm[1990])은 상당수의 고령인구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최초의 퇴출 이후 재진입하거나 파트타임 일자리로 부분적으로 퇴출하는 등 경제활동에 깊이 연루되어 있어 은퇴의 개념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Fuchs(1982)는 자영업을 포함하여 고령인구가 일을 계속할 확률을 추정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건강문제, 연령, 사적연금 수혜여부, 교육연한, 사무직종 근무여부 등을 분리해낸 바 있다.

특히 Blau(1994)는 분기 데이터를 이용한 노동공급분석을 통해 연간 데이터나 격년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 비해 고령인구들의 상태변화가 보다 빈번하여 일반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수준을 능가하는 동태적인 행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 한계노동력그룹은 주 근로자그룹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통상 보조적 근로자(secondary worker)와 중첩되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가계의 주 소득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선택적인 인구그룹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갖는다. 흔히 보조적 근로자(secondary worker)는 가계 내의 주 소득원이 아니어서 노동시장에 대한 정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노동력과 비정기적이거나 파트타임의 노동을 주로 수행하는 근로자를 일컫는다(Cain[1967]).

여기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문제는 어떤 이유로 일부의 인구는 표준적인 패턴을 따르고, 다른 이들은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지, 이러한 패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사회보장시스템 등 정책변수들이 이러한 노동공급패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인데, 본고는 우리나라의 고령인구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하는 움직임과 부문별 이동에 관해 대략적인 행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노동력의 경우 계량분석에 있어 교육정도, 배우자의 소득수준 등이 노동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 특히 주부의 경우 가계의 이차적 소득원으로서 기능하기에 일차적 소득원인 남성노동력과는 다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전제되어 대표적인 보조적 노동력(secondary labor)으로 상정되어 왔다.

이렇게 다른 변수들을 통제함으로써 여성노동력의 노동력 공급 행태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앤올로프(2000)는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하지 않은 기혼 여성의 경우, 가족을 보살피거나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을 제치고 유급노동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즉, '유급노동에의 접근' 자체에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실제적인 문제에 유익한 직관을 제공하는데, 여성이 유급노동에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과 유급노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도와 메커니즘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탁아제도가 발달한 스웨덴의 여성은 유급노동에 쉽게 접근하며, 스웨덴에 비해 탁아제도가 덜 발달한 노르웨이의 경우 전업주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네덜란드의 경우 강한 사회민주주의적인 전통을 갖고 있으나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서비스는 거의 없기에 역시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부분은 성별 직종분리나 여성의 시간제 고용 밀집현상과 같은 다른 측면과도 깊은 관련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로 여성노동력이 노동시장의 안과 밖에서 행하는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았다.

청소년(youth)그룹은 OECD 분류기준에 의해서는 15~24세의 그룹으로 정의되는데, 이 연령대는 통상 교육기간과 겹치는 부분이 크기에 자발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르려는 성향이 강한 그룹으로 분류되며, 교육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열악한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육을 받고 있지 않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에서의 애로가 향후의 노동시장 경험에서 누적되

거나 영향을 남기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률이 100%에 달하고 대학 진학률이 80%에 근접하고 있어 취학인구가 아닌 노동인구를 따로 고려할 필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분석에서는 이들을 독자적인 그룹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저학력 노동력의 경우도 노동시장에서의 교섭력이라는 측면에서 여타 한계노동력그룹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데, 통상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노동시장 바깥에 머무는 것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교육과 경제활동참가율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되어왔다. 특히 고졸 미만으로서 취업하지 않은 인구가 일반적으로 전체 미취업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저학력그룹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들 그룹이 노동시장에서 보여주는 진입과 퇴출행태, 부문 간 집중과 이동행태 등에 대해 일차적으로 파악하려 노력했다.

III. 데이터

각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1998년에서 2002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 6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비활동성이 높은 인구그룹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한 1차적 현황과 약이라는 연구목적에 고려하여 15~20세 취학연령층은 제외, 분석의 범위를 20세 이상의 전체인구로 국한하였다. 연도별로 샘플의 수는 61,556명에서 64,400명까지 편차가 존재하는데, 이를 고려하여 모든 수치에는 샘플의 규모를 함께 밝혔다.

시간의 경과를 따라 대상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분석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동일한 샘플인구를 관찰할 수 있는 최장기간인 1998년 6월에서 2002년 12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5년 기간 동안 샘플 내에 남은 인구의 수는 20,916명으로서 이들이 55개월간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퇴출하고, 상이한 노동형태, 종사상지위, 산업부문 간을 이동한 과정을 관찰하였다.

IV.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실업률이 상승하면,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해 보조적인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추가적으로 진입하게 되는 부가노동자효과(added worker effect)와 일자리를 발견할 희망이 없다고 느낀 근로자들이 구직활동에서 퇴출하는 실망효과

<표 1>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추계(1998~2002년)

(단위: %)

인구그룹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1998	1999	2000	2001	2002	1998	1999	2000	2001	2002
전 체	66.8	66.3	66.5	66.4	66.6	6.5	5.7	3.4	3.0	2.4
남 자	83.3	82.0	81.1	80.7	80.5	7.5	6.7	4.0	3.5	2.8
여 자	52.2	52.6	53.7	53.8	54.4	5.1	4.5	2.6	2.4	1.9
20~54세	72.2	71.9	72.4	72.8	73.3	7.3	6.4	3.9	3.4	2.9
55~64세	66.0	65.5	64.2	64.3	64.4	3.7	4.0	1.9	1.9	1.3
65세 이상	32.0	33.2	34.3	34.4	35.2	1.2	0.7	0.3	0.3	0.3
고졸 미만	61.8	61.4	61.4	60.4	59.6	5.1	4.2	2.3	2.0	1.3
고졸~대학 중퇴	65.9	65.8	66.2	66.6	67.3	7.7	7.1	4.0	3.5	3.0
대졸 이상	79.2	77.9	77.4	77.7	78.2	6.5	5.7	3.8	3.7	3.1

주: 1)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6월 자료 중 2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필자가 계산.
 2) 샘플 수는 1998년 63,069명, 1999년 63,400명, 2000년 63,172명, 2001년 62,819명, 2002년 61,556명.

(discouragement effect)를 함께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에 상반된 영향을 끼치는 두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강한지는 선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수행되는 경험적 연구의 대상이다. 그러나 통상 실망효과가 부가노동자효과를 압도한다고 간주되며, 따라서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일반적으로 가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부의 상관관계는 인구 그룹의 특성에 따라 방향이나 크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Cain[1967]). 게다가 한계노동력과 관련해서 사고하자면, 노동시장이 악화되어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 근로자 그룹(main worker)이 노동시장 내부에 머

무르려는 성향이 강한 데 비해 노동시장의 정착도가 낮은 그룹의 경우는 쉽게 노동시장을 퇴출한다. 반대로 전반적인 고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 그룹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반응이 보다 빠르다. 따라서 그룹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며, 구체적인 시기와 국가에 따라 그 상대적 크기 또한 다를 것이다.

1998~2002년은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회복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표 1>에 의하면 전반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룹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남성그룹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데 반해 20세 이상 여

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8년 52.2%에서 2002년 54.4%로 증가하였다.²⁾ 실업의 경우 전 인구그룹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그룹에서 감소폭이 미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 그룹에서 뚜렷한 실업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실업률의 감소와 함께 경제활동참가율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로 여성그룹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 남성의 참가율 감소가 상쇄된 결과이다. 전반적인 수준에 관해 평가하자면, 최근 기간 동안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가 완화되어 1998년 31%p에서 2002년 26%p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OECD 국가의 경우 남성과 여성 간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가 약 21%p인 것을 고려하면,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는 아직 OECD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연령대별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20~54세 그룹의 참가율이 증가했고, 55~64세 그룹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였다. 두 그룹 모두에서 실업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 경기회복에 따른 실업률의 감소와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이 두 그룹에 다른 방향

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령층의 경우에는 실업률의 변동이 뚜렷하지 않은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 고령층의 경제활동의 증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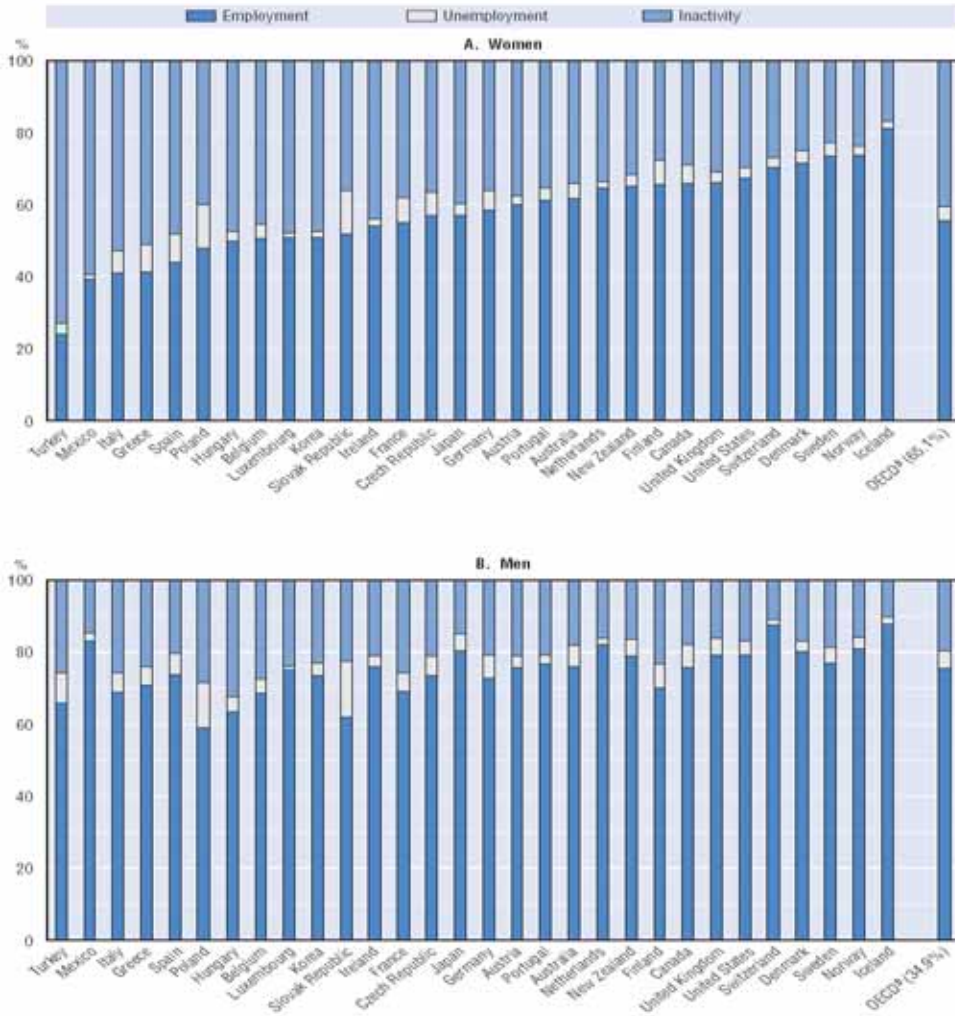
또한 학력별로도 경제활동참가율에 있어서의 변화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상대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대졸 이상의 참가율이 현저히 높은 반면, 참가율의 변화는 중간학력그룹에서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대졸이상그룹과 저학력그룹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실업률과의 역의 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변동치에는 노동시장 신규참여자과 퇴출자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어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관계를 정확히 분리해내기는 어려우나 동일한 시기가 경제활동참가와 실업에 미친 영향이 그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뚜렷이 관찰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회복기인 이 시기의 실업률만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하락폭은 여성보다 남성그룹에서, 연령별로는 20~24세 구간에서 컸으며, 학력별 그룹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이 시기 15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경제위기 직후 하락했던 경제활동참가율을 회복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15세 이상 남성의 경우 1997년 76.1%에서 1999년 74.4%를 기록한 후, 줄곧 74%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데 비해(통계청), 15세 이상 여성의 경우 1997년 49.8%에서 1998년 47.1%를 기록한 후 2002년 49.7%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따라서 회복기 동안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두드러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OECD 국가의 성별 생산가능인구 구성¹⁾



주: 1) 국가 배열은 여성 고용률이 높은 순서에 따름.

2) OECD 국가 인구로 가중평균된 미취업률.

자료: OECD database on Labour Force Statistics.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3에서 재인용.

세부 그룹별로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그룹에서 실업률의 감소가 나타난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그룹 간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 남성의 경우 경제회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2000년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가 뚜렷한 반면, 20~54세 남성그룹의 경우 대략적으로 참

〈표 2〉 세부 그룹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추이

(단위: %)

인구그룹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1998	1999	2000	2001	2002	1998	1999	2000	2001	2002
20~54세										
남 자	88.5	87.5	87.1	86.8	86.8	8.2	7.2	4.4	3.9	3.2
여 자	57.0	57.3	58.8	59.5	60.7	6.0	5.3	3.1	2.8	2.4
55~54세										
남 자	79.3	77.1	74.5	74.9	76.0	5.2	5.7	3.0	2.7	1.9
여 자	54.1	55.1	54.9	54.7	53.8	1.8	1.9	0.7	1.0	0.6
65세 이상										
남 자	44.4	44.7	44.4	45.2	46.3	1.9	0.7	0.5	0.6	0.4
여 자	24.8	26.5	28.4	27.8	28.3	0.5	0.7	0.1	0.1	0.1
고졸 미만										
남 자	78.4	76.7	75.8	74.9	74.0	7.3	5.9	3.4	3.0	1.9
여 자	52.4	52.7	53.4	52.3	51.6	3.3	2.8	1.5	1.2	0.9
고졸~대학 중퇴										
남 자	82.4	81.6	81.0	80.3	80.3	8.3	7.7	4.3	3.7	3.3
여 자	48.8	49.2	50.5	52.0	53.6	6.6	6.2	3.5	3.1	2.5
대졸 이상										
남 자	91.1	89.3	87.7	88.3	88.5	6.4	5.8	3.9	3.7	3.0
여 자	61.3	61.2	62.7	62.9	64.2	6.8	5.4	3.5	3.6	3.3

가율의 감소세가 나타났다. 학력별 역시 남성그룹에서는 모든 학력수준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가 나타났는데, 고학력그룹의 경우 참가율의 급감이 2000년 이후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었다.

전반적으로 실업이 감소하는 움직임과 이러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를 함께 고려할 때, 노동시장에서 취업기회

가 낮은 근로자가 실망효과로 인해 퇴출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실업의 감소폭이 경제활동참가율 감소로 인해 더욱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당한 폭으로 나타난 실업률의 감소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을 경우 이 시기 실현된 수치보다는 덜 현저하게 나타났다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55~64세 그룹과 저학력그룹

룹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의 미미한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모든 그룹에서 참가율의 증가와 실업률의 감소가 병행되었다. 이 중 중간학력그룹의 경우 5%p에 달하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가 4년 기간에 일어났으며, 55~64세 연령과 달리 65세 이상 그룹의 경우 참가율이 상당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 노동공급의 증가경향을 보여주었다.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가 대체적인 추세인 것을 감안하면, 이 시기 실업의 감소가 실제적인 취업기회의 증가를 전면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율의 증가와 실업률의 감소가 동시에 상당폭 진행되었기에 이 시기 여성의 취업 증가는 실업률 수치 변화보다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1>의 전반적 수준에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율이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아 참가율과 실업률 간의 일관된 상관관계를 도출하기 어려웠으나, 세부 그룹별로 관찰할 경우 저학력, 55~64세 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그룹과 55세 이상의 남성그룹에서 참가율과 실업률 간에 전반적인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각각의 수준을 살펴보면, 20~54세 연령대에서는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성별 격차가 가장 큰 연령그룹이었으며, 실업률의 격차는 크지 않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연령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참가율 하락은 남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 성별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55~64세 연령대에서 65세 이상의 연령으로 넘어가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하락하여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는 약 20%p에 달하고 있다.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남녀 공히 학력의 증가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도 함께 증가하는데,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이 시기 하락했다가 2000년 이후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하기 시작한 것과 달리 여성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과는 달리 실업률에서는 학력그룹 내 성별 격차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미만 그룹에서 남녀 실업률 차이가 1%p에 불과했으며, 고졸 이상의 그룹에서는 남녀 간 실업률의 차이는 미미한데, 이러한 추세는 남성의 실업률이 이 기간 동안 급감한 것에서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과 <표 2>를 종합하면,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시기에 그 효과가 성별·연령별·학력별로 차등적으로 배분되었다는 것과, 실업률 감소와 동반되는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역시 인구 그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주 근로자그룹으로 분류되는 청중년 남성그룹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실

업을 변화와 별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데 비해 여성그룹의 경우에는 고령인구를 제외한 그룹에서 실업률 감소에 대한 참가율 증가 반응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98년 기간에 대한 연구인 김대일(2000a)은 비경제활동에서 실업으로 전환되는 인구를 분석하여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가 실업으로 전환되는 비중이 두드러지며, 이 현상이 장년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의 실업진입 증가에 초래된 바가 크다고 관찰했는데, <표 1>과 <표 2>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반적 증가만큼의 실업률 감소가 동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장년 여성의 경우 실업률의 감소와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김대일(2002a)에 나타난 실업인구의 여성 기여가 이후 시기에는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V. 경제활동상태 변화 개괄과 변화패턴 분석

앞 장에서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수준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계노동력 그룹에 속하는 여성, 고령, 저학력그룹의 경우 주 근로자그룹이라 할 수 있는 청년 남성근로자그룹에 비해 경제활동상

태가 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실업률은 높게 나타났으나, 1998~2002년 기간 동안의 노동시장 참가 정도가 변화한 폭과 방향은 각 개별 그룹 간에 상이하게 나타났다.

개별 인구그룹에 있어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이 차이가 나며, 다른 폭과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인구그룹별로 상세한 관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한다.

더구나 각 한계노동력그룹의 비활동성(inactivity)을 측정하고, 잠재적인 노동공급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두 시점을 기준으로 개략적인 경제활동참가 수준을 관찰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며, 한계노동력그룹 내 성원들이 노동시장을 넘나드는 정도를 상세히 관찰하여 이들 그룹의 경제활동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표 3>은 1998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월별 패널을 통해 각 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입, 퇴출하거나 노동형태를 변화시켰던 과정을 추적하여 일정 시간 동안 노동시장 내외의 이동성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묘사하였다. 경제활동상태가 월별로 기록되었기에 통상의 연간이나 격년 간격 데이터보다 각 개인의 상태가 상세히 관찰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네 가지의 상태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F(주 36시간 이상 노동), P(주 36시간 미

〈표 3〉 경제활동상태 이동성(1998~2002년)

	인 원(명)	비 중(%)
상태변화		
5년 내내 F	3,766	18.0
5년 내내 P	17	0.1
5년 내내 O	2,818	13.5
1번	1,026	4.9
2~5번	5,725	27.4
6~10번	3,976	19.0
11~15번	2,234	10.7
16~20번	1,008	4.8
21번 이상	346	1.6
합 계	20,916	100.0
비경활 경험 수		
0번	7,219	34.5
1번	6,432	30.8
2~5번	6,492	31.0
6번 이상	773	3.7
합 계	20,916	100.0
실업 경험 수		
0번	17,362	83.0
1번	1,882	9.0
2~5번	1,545	7.4
6번 이상	127	0.6
합 계	20,916	100.0

주: F, P, O는 각각 주 36시간 이상 노동, 주 36시간 미만 노동, 비경제활동을 가리킴.

만 노동, U(실업), O(비경제활동)의 범주이다. 이 중 55개월 내내 실업상태를 유지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상당히 빈번한 이동이 관찰되는데, 55개월간 노동시장상태가 변하지 않은 경우는 31.6%에 불과했으며, 6번 이상 변화한 경우가 36.1%, 한 번도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비경제활동인구)가 13.5%였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퇴출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34.5%였으며,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83%, 5년 동안 실업을 2~5번 경험한 사람은 7.4%에 이르렀다.

실업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인구의

비중이 17%에 불과한 반면, 5년 내내 주 36시간 이상 노동을 지속한 인구 역시 18.0%에 지나지 않는 것은 비경제활상태를 경험한 인구 비중이 65.5%에 이르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취업에서 비경제활동 사이의 단계로서 실업이 존재한다는 전형적인 논리 설정으로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취업상태가 종료되는 경우 비경제활동상태로 이동함으로써 실업상태를 거치지 않게 되는 통로가 보편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표 4>는 각 인구그룹별로 이러한 경제활동상태 변화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표 3>에서의 사항들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남성 20~54세 연령구간, 남성 대졸 이상 학력수준에서는 5년 내내 주 36시간 이상 노동에 종사한 인구의 비중이 35% 정도인 데 반해, 남성 고령인구, 여성 각 그룹에서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5년기간 내내 비경제활상태에 머문 경우는 고학력 여성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 대졸이상그룹의 경우 남녀 격차의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80%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남성 20~54세 연령의 주 36시간 이상 근무 지속비율이 34% 수준인 것은 여성의 경우와 크게 대비된다. 여성의 경우 평균적 경제활동참가율이 약 54%로 나타났으나, 주 36시간 이상

근무지속 인구의 비중이 가장 큰 20~54세 연령구간에서도 이 비중이 12.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취업형태가 훨씬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경제활을 경험하지 않은 인구비중 역시 대졸남성의 경우 58.1%, 대졸여성의 경우 21.7%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성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비경제활경험인구의 비중이 높아졌다.

비경제활동이 지속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으로의 상태변화횟수, 즉 이동 빈도만을 고려한 경우 2번 이상 비경제활동을 경험한 인구의 비중은 주로 여성에게서, 여성 중에서도 학력이 낮을수록, 55~64세 구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에 남아 있는 경우와 구별되는 범주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업의 경우 특기할 만한 것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만한 그룹일수록 실업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고령인구와 저학력 여성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경제활동인구로의 빈번한 움직임이 실업의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는 비활동성(inactivity)을 묘사하

〈표 4〉의 계속

(단위: %)

	남 성 20~54세	남 성 65세 이상	여 성 20~54세	여 성 55~64세	여 성 65세 이상	남 성 고졸 미만	남 성 고졸 이상	여 성 고졸 미만	여 성 고졸~대학중퇴	여 성 대학중퇴 대졸 이상
비경활 경험 수										
0번	59.4	22.0	22.4	15.8	6.5	43.2	58.1	19.9	18.3	21.7
1번	20.1	45.3	34.0	36.6	50.0	26.9	22.5	33.6	39.0	42.4
2~5번	18.5	31.0	38.7	42.5	38.1	26.8	16.8	41.0	38.6	31.4
6번 이상	2.0	1.8	4.9	5.1	5.4	3.1	2.6	5.5	4.2	4.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실업 경험 수										
0번	76.2	97.3	81.3	93.7	98.9	83.1	83.3	89.4	79.6	80.9
1번	12.1	1.7	10.3	4.0	0.7	7.4	9.4	6.1	11.1	10.9
2~5번	10.5	1.1	8.0	2.1	0.4	8.3	7.0	4.3	8.9	8.1
6번 이상	1.2		0.4	0.2		1.2	0.4	0.2	0.5	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상 수	6,900	1,023	7,764	2,020	1,117	3,958	1,913	6,320	3,602	979

주: F, P, O는 각각 주 36시간 이상 노동, 주 36시간 미만 노동, 비경제활동을 가리킨다.

〈표 5〉 미취업 여부 변화와 지속기간

(단위: %)

	전체 (20,916)	남성 20~ 54세 (6,900)	남성 65세 이상 (1,023)	여성 20~ 54세 (7,764)	여성 55~ 64세 (2,020)	여성 65세 이상 (1,117)	남성 고졸 미만 (3,958)	남성 대졸 이상 (1,913)	여성 고졸 미만 (6,320)	여성 고졸~ 대학중퇴 (3,602)	여성 대졸 이상 (979)
미취업자인 적이 있다	64.0	39.4	75.8	76.5	83.0	92.7	56.1	34.6	79.5	81.5	70.8
항상 미취업자	13.5	1.4	28.5	17.4	23.3	39.8	7.1	4.7	19.3	22.5	24.4
미취업률 평균	30.9	9.4	44.7	41.6	44.5	65.2	18.9	13.2	41.5	49.7	45.6
미취업 경험자 수 / 항상적 미취업자 수	4.8	28.5	2.7	4.4	3.6	2.3	8.0	7.4	4.1	3.6	2.9

	전체 (6,329)	남성 20~ 54세 (735)	남성 65세 이상 (389)	여성 20~ 54세 (3,454)	여성 55~ 64세 (776)	여성 65세 이상 (624)	남성 고졸 미만 (613)	남성 대졸 이상 (221)	여성 고졸 미만 (2,368)	여성 고졸~ 대학중퇴 (2,007)	여성 대졸 이상 (479)
취업자가 되는 순간 까지의 평균 개월 수	14.6	9.3	13.0	16.6	14.6	14.8	8.1	9.7	14.3	17.6	19.3
5년 내에 취업	55.5	87.1	25.2	60.8	39.4	28.7	54.5	59.3	48.6	59.5	50.1
5년 내에 취업 후 다시 미취업	80.7	73.6	91.8	79.6	87.9	92.7	87.1	70.2	88.4	77.7	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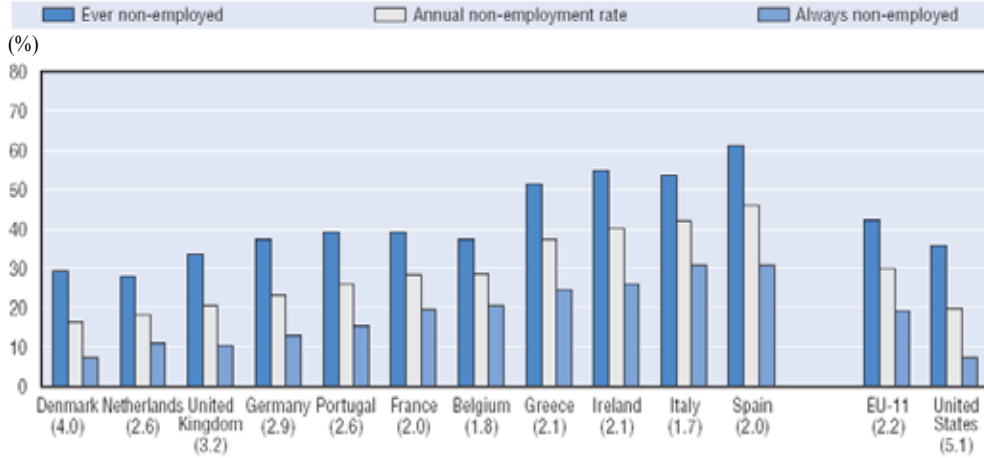
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미취업상태의 이동성(turnover)과 지속성(persistence) 수준을 보여주는데, 외국의 경우 이미 집계된 수치가 존재하기에 이에 관한 국제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단, 다른 나라의 경우 연간 데이터가 사용된 반면, 여기서는 월별 데이터가 사용되었기에 우리나라의 상대적 수준을 대략적으로 진단하는 것 이상의 해석을 위해서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만일 미취업상태의 인구와 취업상태의 인구 간의 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각의 그룹이 고정되어 있다면, ‘미취업상태를 경험해본 사람의 비율’, ‘언제나 미취

업이었던 사람의 비율’, ‘연간미취업률’은 동일할 것이다. 표에서 미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5년 내내 미취업이었던 사람의 4.8배로 나타났는데, 동일한 비율이 유럽의 경우 2.2배, 미국이 5.1배인 것을 고려하면(OECD[2003]), 취업·미취업 간의 움직임이 유럽보다 활발하며, 미국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 참조).

그룹별로도 큰 편차가 나타난다. 다른 나라의 경우 고용률이 낮은 그룹에서 이동성(turnover)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림 2] OECD 미취업인구의 전환율



주: () 안의 수치는 5년 내내 미취업상태였던 인구에 대한 5년간 미취업을 경험한 인구의 비율.
 자료: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1994~1998), PSID(1993~1997). *OECD Employment Outlook* 2003에서 재인용.

이러한 경향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즉, 남성그룹의 경우 고학력그룹보다 저학력그룹에서 이동성 지표가 더 높게 나타났다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학력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는 것에 반해 이동성의 지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참가율과 이동성 간의 뚜렷한 관계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성별 격차가 학력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이동성(turnover rate)의 남녀 차이가 주로 저학력 여성에서 나온다고 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여성근로자의 이질성에 대해서는 Goldin (1989)이 일부의 여성은 노동시장에 일찍 참여하고 노동시장의 정착도가 큰 반면, 다른 일부는 정착도가 낮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Royalty(1998)는 저학력 여성이 남성근로자와 이동성에서 다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을 지적했다. 즉, 고학력 여성은 남성과 보다 유사한 노동시장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원래 성별 차이가 있다는 것의 근거가 여성의 경우 비경제 활동에 대해 남성과 다른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들의 연구에 근거하자면, 교육수준이 올라가면서 여성의 선호체계가 남성의 것과 유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관찰시작시점에서 미취업상태였던 대상만을 추출하여 이후의 상태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미취업상태의 지속기간은 취업률이 낮은 그룹에서 보다 길

게 나타나는데, 이것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수정이 필요하다. 즉, 남녀 모두에서 고용률이 높은 고학력그룹에서 지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구분에 있어서는 고령으로 이동할수록 지속기간이 긴 보편적인 흐름이 관찰되었다. 이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학력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미취업에서 취업상태로 이동하거나 이러한 움직임을 반복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기간의 수준을 비교하자면, 1990년대 중반 유럽의 경우 실업과 비경제활동을 포함한 미취업상태에서 평균적으로 관찰시점 이후 4.25년이 동일한 상태로 지속되었고, 미국의 경우 이 기간이 3.5년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취업상태의 지속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2003]). 물론 비교에 사용된 데이터의 기간이 다르며(유럽의 경우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1994~1998을, 미국은 PSID 1993~1997을 이용), 기본적으로 미취업상태의 시작시점이 나타나 있지 않은(truncated) 데이터들이기에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개략적인 비교만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취업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내기가(activate) 상당히 용이하다는 함의를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에 취업한 사람의 대부분이 다시 기간 내에 미취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일단 취업이 된 이후

에 다시 퇴출하기까지의 지속기간 역시 매우 짧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취업을 위해서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 역시 중요하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공급이 많다 하더라도 수요가 존재하는 부문이나 노동력 종류에서 구조적인 괴리가 존재한다면, 노동력 공급이 취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OECD 국가와의 취업상태 변화율 비교는 노동력 수요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상태를 전제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비경제활동상태의 이동성 비율(turn-over rate)과 지속기간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는데, 미취업상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동성 비율과 지속기간의 상대적 크기는 그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미취업상태가 비경제활동과 실업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비경제활동의 이동성 비율이 미취업상태에 비해 낮게 나타나거나 지속기간이 길게 나타난다면,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표 5>와 <표 6>을 비교해보면 미취업에서 취업으로의 이동성과 비경활에서 경활로의 이동성, 취업까지의 지속기간과 경활까지의 지속기간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즉, 실업상태가 미취업상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이동이 전체 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력수준에

<표 6> 비경제활동상태 변화와 지속기간

(단위: %)

	전체 (20,916)	남성 20~ 54세 (6,900)	남성 65세 이상 (1,023)	여성 20~ 54세 (7,764)	여성 55~ 64세 (2,020)	여성 65세 이상 (1,117)	남성 고졸 미만 (3,958)	남성 대졸 이상 (1,913)	여성 고졸 미만 (6,320)	여성 고졸~ 대학중퇴 (3,602)	여성 대졸 이상 (979)
비경활인 적이 있다	60.7	32.0	75.7	74.7	82.7	92.7	52.3	28.3	78.5	79.8	68.1
항상 비경활	12.9	1.1	28.2	16.5	23.0	39.8	6.9	4.3	18.9	21.3	23.5
비경활률 평균	29.3	6.6	44.5	40.2	44.1	65.1	16.9	11.1	40.7	48.1	44.0
비경활 경험자 수 / 항상적 비경활자 수	4.7	29.4	2.7	4.5	3.6	2.3	7.6	6.6	4.2	3.8	2.9

	전체 (5,748)	남성 20~ 54세 (416)	남성 65세 이상 (382)	여성 20~ 54세 (3,280)	여성 55~ 64세 (757)	여성 65세 이상 (621)	남성 고졸 미만 (472)	남성 대졸 이상 (155)	여성 고졸 미만 (2,270)	여성 고졸~ 대학중퇴 (1,943)	여성 대졸 이상 (445)
경활이 되는 순간까 지의 평균 개월 수	13.6	10.9	10.8	14.2	13.0	12.7	9.6	8.3	13.1	14.2	14.9
5년 안에 경활이 됨	53.0	82.0	24.6	60.9	38.7	28.5	42.2	47.1	47.4	60.5	48.3
5년 안에 경활로 된 후 다시 비경활	80.9	72.4	91.5	79.3	88.7	92.7	85.9	75.3	88.4	77.1	69.3

따라 구분할 경우 동일한 학력그룹 간에 취업까지의 지속기간과 경활까지의 지속기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며, 학력수준이 증가할수록 지속기간 간의 격차가 늘어나 실업범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표 7>은 1998~1999년, 2001~2002년 기간의 패널로 구성된 샘플을 이용하여, 두 시기 동안 각 경제활동범주 간을 이동한 상황을 추출해 낸 경제활동상태 이전행렬을 요약한 결

과이다. 제시된 결과를 통해 경기가 호전되는 것의 영향이 경제전반에 미친 영향과 이것이 주 노동력, 한계노동력그룹에 상이하게 배분된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998~1999년 기간에 샘플에 포함된 인원은 45,628명, 2001~2002년 기간에는 46,122명이었다. 경제활동상황은 주 36시간 이상 노동, 36시간 미만 노동, 실업, 비경제활동, 일시휴직 등 5개 범주로 나

〈표 7〉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인구 그룹	경제활동상태 변화(1998→1999)						경제활동상태 변화(2001→2002)					
	O → O	O → F	U → O	U → U	U → F	F → F	O → O	O → F	U → O	U → U	U → F	F → F
전체	80.0 (26.2)	13.6 (4.4)	22.6 (0.8)	17.9 (0.7)	50.7 (1.8)	85.2 (50.5)	82.4 (27.1)	12.7 (4.2)	27.2 (0.4)	11.3 (0.2)	56.2 (0.9)	86.8 (52.0)
남성 20~54세	57.6 (5.6)	28.5 (2.8)	16.4 (1.0)	19.4 (1.2)	55.8 (3.5)	90.2 (72.4)	62.1 (6.2)	28.3 (2.8)	19.7 (0.5)	13.7 (0.4)	61.8 (1.6)	91.6 (76.8)
남성 65세 이상	92.5 (47.6)	4.8 (2.5)	81.3 (0.6)	6.3 (0.1)	6.3 (0.1)	77.8 (32.5)	91.9 (51.7)	5.6 (3.2)	33.3 (0.3)	19.1 (0.2)	42.9 (0.4)	75.4 (26.9)
여성 20~54세	77.5 (33.3)	15.4 (6.6)	31.1 (0.9)	15.2 (0.4)	44.1 (1.3)	81.3 (39.9)	79.7 (31.6)	14.8 (5.9)	37.8 (0.5)	5.4 (0.1)	51.5 (0.6)	82.9 (43.6)
여성 55~64세	84.3 (37.7)	11.6 (5.2)	40.0 (0.3)	10.0 (0.1)	40.0 (0.3)	82.7 (42.4)	90.2 (41.7)	7.1 (3.3)	50.0 (0.2)	0.0 (0.0)	33.3 (0.1)	83.3 (38.5)
여성 65세 이상	93.4 (67.7)	3.9 (2.8)	60.0 (0.1)	20.0 (0.0)	20.0 (0.0)	71.1 (16.5)	89.1 (60.8)	7.0 (4.7)	35.1 (0.5)	12.3 (0.2)	49.1 (0.6)	77.2 (18.8)
남성 고졸 미만	81.0 (16.1)	12.7 (2.5)	17.1 (0.8)	17.1 (0.8)	54.4 (2.5)	85.5 (59.6)	86.2 (20.3)	9.9 (2.3)	24.4 (0.4)	13.8 (0.2)	54.5 (1.0)	87.6 (59.6)
남성 대졸 이상	68.2 (6.2)	22.4 (2.0)	17.9 (0.8)	22.9 (1.0)	53.7 (2.4)	91.7 (77.2)	75.5 (8.6)	17.8 (2.0)	21.6 (0.6)	14.4 (0.4)	61.2 (1.7)	92.1 (76.6)
여성 고졸 미만	84.6 (39.1)	10.9 (5.0)	33.9 (0.5)	11.6 (0.2)	43.4 (0.7)	82.1 (39.4)	88.3 (40.7)	8.3 (3.8)	36.8 (0.2)	2.9 (0.0)	51.5 (0.3)	83.1 (38.9)
여성 고졸~ 대학 중퇴	78.3 (41.0)	14.6 (7.7)	33.1 (0.9)	18.9 (0.5)	39.5 (1.0)	77.6 (31.1)	78.1 (37.7)	15.7 (7.6)	41.5 (0.6)	7.4 (0.1)	46.7 (0.7)	81.6 (35.6)
여성 대졸 이상	83.6 (32.4)	10.5 (4.1)	26.5 (1.0)	12.4 (0.5)	52.1 (2.0)	82.7 (42.6)	81.9 (30.8)	12.3 (4.6)	31.4 (0.7)	8.6 (0.2)	55.7 (1.2)	82.0 (43.9)

주: O는 비경제활동, F는 주 36시간 이상 노동, U는 실업을 나타낸다. 각 수치는 각 움직임이 해당 그룹의 해당 경제활동상태의 움직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 안의 수치는 해당 그룹의 전체 움직임 중에서 해당 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누어 개인들이 상태 각각을 이동한 상황을 집계하였다.

개별 칸의 첫 번째 숫자는 각 인구그룹에서 익년 해당 그룹으로 움직인 인구

가 전년 해당 범주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두 번째 숫자는 해당 움직임의 인원이 전체 샘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즉, 전체 그룹의 경우, 1998년 비

경제활동인구 중 80%가 익년에도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했으며, 이는 전체 샘플의 26.2%에 해당한다. 추가적인 예를 들면, 남성 20~54세 그룹에서 1998년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사람 중 익년에 주 36시간 이상 노동을 수행한 사람은 28.5%이며, 이는 전체 샘플 중 2.8%에 해당한다.

결과에 따르면, 1998~1999년 기간보다 2001~2002년 기간에 경제활동상태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이동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비경제활동인구의 80%가 1999년 비경제활동에 포함되었고, 13.6%가 1999년에 주 36시간 이상 노동인구에 유입된 반면, 2001년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82.4%가 익년에 비경제활동인구로, 12.7%가 주 36시간 이상 노동인구로 분류되었다.

실업으로부터의 움직임은 흥미로운 현상을 보이는데, 1998년 실업인구의 22.6%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된 반면, 2001년 실업인구 중에서는 27.2%가 익년에 비경제활동으로 움직였으나, 실업에서 익년에 주 36시간 이상 노동으로 움직인 비중 역시 1998년의 50.7%에서 2001년에는 56.2%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된 것은 경기가 호전되는 것의 영향이 각 인구그룹별로 상이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남성 20~54세 그룹의 경우 주 36시간

이상 노동인구 중 익년에 주 36시간 이상 노동에 속한 인구는 1998년 기준 90.2%였으며, 2001년의 경우 91.6%였다. 1998년 이들 그룹의 실업인구 중 55.8%가 익년에 주 36시간 이상 노동으로 이동했으며, 2001년에는 61.8%가 이동하여 전반적인 경제상황 개선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인구그룹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65세 이상 남성 고령인구의 경우 비경제활동에서 주 36시간 이상 노동으로의 움직임은 양 기간 동안 증가한 반면, 주 36시간 이상 노동에 남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했다. 여성 고령인구는 주 36시간 이상 노동에 남은 경우가 크게 증가한 결과를 보여, 경기호전의 영향이 같은 고령인구 중에서도 성별 간에 상이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업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움직임 역시 성별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의 경우 동일 연령대나 동일 학력수준의 여성그룹보다 실업에서 비경활로 이동하는 경우가 월등히 작게 나타나 여성 노동인구가 노동시장에서 쉽게 퇴출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특히 남성고령인구의 경우 실업에서 비경활로 이동하는 비중이 크게 준 반면, 여성그룹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여성그룹 중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비경활로의 퇴출인구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노동시장에의 정착도가 성별과 연령 및 학력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경기가 호전된 이후에도 이 수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위치가 열악한 그룹의 경우 경기가 호전되는 것의 영향이 시장정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취업에서 취업, 취업에서 실업이나 비경활로의 이동정도를 안정성이라 간주할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형태인 주 36시간 이상 노동에서 주 36시간 이상 노동에 남은 인구비중이 고용의 안정성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일 것이다. 여성그룹은 이러한 안정성의 정도가 학력 수준과 별다른 상관을 보이지 않고 있어 남성그룹과 차이를 보이며, 여성 중간학력그룹이 유일하게 1998~1999년 기간보다 2001~2002년 기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간학력여성이 경기호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인구에 속한 인구 중 익년에도 실업인구에 포함된 경우는 남성이 오히려 여성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었다. 고령인구의 경우에만 남성 실업잔존인구비중이 여성보다 작을 뿐, 학력별 그룹이나 청중년에서는 실업잔존비중이 여성에서 작게 나타나는데, 이는 실업인구 중 비경활로 이동하는 인구비중이 여성 각 그룹에서 남성보다 월등히 큰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관찰할 수 있었던 경향은 한계노동자그룹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움직임은 이전에 비해 활발해진 반면, 주 36시간 이상 노동 범주에 머무르는 정도, 즉 안정성의 측면에서 주 노동자그룹과 한계노동자그룹 간의 격차는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상태의 안정성이 감소하는 흐름이 모든 인구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7>에서와 같이 일정 시점 간의 이동상황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변화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55개월을 통틀어 개인들이 거친 변화패턴을 관찰하였다. <표 8>은 다양한 이동패턴을 범주화한 후, 이러한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한 결과이다.

경제활동상태를 이동하는 패턴은 다항 로짓모델(Multinomial logi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V_k 가 개인 i 가 패턴 j 를 선택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효용이라면, 이는 다음과 같이 비확률적인 부분과 확률적인 부분으로 분해될 수 있다.

$$V_{ji} = S_{ji} + \epsilon_{ji}$$

여기서 S_{ji} 는 관측된 변수들의 함수이다.

그렇다면 i 번째 개인이 j 번째 패턴을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P_{ji} = \Pr[V_{ji} > V_{ki} \text{ for } k \neq j, k = 1 \dots J]$$

$$P_{ji} = \Pr[S_{ji} - S_{ki} > \varepsilon_{ki} - \varepsilon_{ji} \text{ for } k \neq j, k = 1 \dots J]$$

다항로짓모델은 위의 확률적인 부분이 독립적이고 동일한 Weibull 분포를 따라 교란항 간의 차이가 로짓분포를 따르게 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X_i 가 경제활동상태 이동패턴을 설명하는 독립변수일 때,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하여 모델을 추정하게 된다.

$$P_{ji} = \frac{e^{\beta_j' X_i}}{\sum_{k=0}^J e^{\beta_k' X_i}}$$

경제활동상태 이동의 범주를 설정함에 있어서 범주 1은 5년간 주 36시간 이상 노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경우, 범주 2는 실업이나 노동시장 퇴출 없이 36시간 이상 노동과 36시간 미만 간을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동한 경우, 범주 3은 노동시장 퇴출 없이 실업과 노동만을 이동하며 경제활동을 수행한 경우, 범주 4는 노동시장 퇴출을 한 번 이상 경험했으나 경제활동으로 다시 재진입한 경우, 범주 5는 5년 내내 비경제활동에 머무른 경우 등 5개의 범주로 나누어 다항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기본 범주(base category)는 샘플크기가 가장 큰 범주로서 퇴출경험이 있으나 5년 내내 비경제활동에 머무르지 않는 범주 4로 설정하였다.

또한 설명변수로는 가구주인지의 여부, 연령, 학력더미, 결혼 여부를 선택하였다.

<표 8>은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구주인지의 여부와 비경제활동에만 머무른 경우를 제외한 범주에서 모두 양의 값을 가졌다. 즉, 비경제활동으로의 퇴출과 재진입을 경험한 경우에 대한 다른 범주들의 상대적 확률을 결정함에 있어 가구주인지의 여부는 비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머무른 경우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른 노동시장 상태에 대해서는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연령변수는 가구주변수와 정확하게 반대의 방향을 보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비경제활동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범주들의 상대적 확률이 낮았으며, 비경제활동에 머물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더미변수와 유배우자 더미는 가구주 여부와 같은 방향을 나타냈으며, 대졸 더미는 모든 범주에서 양의 값을 보여, 비경제활동으로 퇴출했다 재진입하는 인구그룹에 속할 확률에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비경제활동에만 머무르는 범주의 경우 역시 대졸자 여부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저학력 더미의 경우에는 파트타임과 주 36시간 이상 노동만으로 이루어진 패턴에 대해서만 양의 계수를 가져 기본범주에 대한 여타 범주들의 상대적

〈표 8〉 Multinomial logit 결과

	범 주			
	1	2	3	5
가 구 주	1.7* (0.08)	1.3* (0.08)	1.7* (0.10)	-0.9* (0.09)
연 령	-0.1* (0.002)	-0.02* (0.002)	-0.1* 0.003	0.1* (0.002)
남 성	0.2* (0.07)	0.3* (0.08)	0.5* (0.09)	-0.8* (0.08)
대 출 자	0.5* (0.06)	0.5* (0.07)	1.0* (0.07)	0.4* (0.08)
고졸 미만	-0.2* (0.05)	0.3* (0.06)	-0.2* (0.07)	-1.2* (0.06)
유배우자	0.9* (0.06)	0.8* (0.07)	0.5* (0.08)	-0.2* (0.08)
constant	-0.5* (0.09)	-2.2* (0.11)	-1.2* (0.12)	-3.8* (0.11)

확률에는 음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계노동력으로 분류되는 그룹 특성이 대체로 노동시장 퇴출에 양의 계수를 가지며, 실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노동시장의 주요 활동범주와 같은 방향의 계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여성그룹이나 저학력그룹의 경우 비경제활동이 포함된 범주를 선택할 상대적 확률이 높은 데 반해 실업이 포함된 범주를 선택할 확률은 오히려 낮았다. 이들 그룹의 경우 실업상태를 경험하는 것보다 노동시장 자체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고학력그룹의 경우는

비경제활동이 수반되는 범주를 선택할 확률이 낮았고, 실업이 포함된 범주와 이에 비경제활동에 머무를 확률이 높았다.

VI. 산업 간, 종사상지위 간 이동 현황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산업·업종 간의 성장속도는 차이를 가지며, 이에 따라 고용을 창출하거나 인력을 퇴출시키는 정도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 앞에서는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 간을, 그리고 경제활동 내에서도 주 36시간 이

상의 노동과 36시간 미만의 노동 간을 이동하는 정도를 살펴보았으나, 본장에서 는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시장 정착도가 차이나는 그룹들이 어떠한 경로로 산업 과 종사상지위 간을 이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고령근로자의 경우 주 직장(career job)을 떠난 후 산업, 직업상의 이동을 통해 완전은퇴 전 직장(bridge job)을 구하는 것이 보편적인 통로이며, 이러한 경우 오랜 기간 근무했던 분야에 잔류하지 못함으로써 인적자원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Ruhm(1990)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별 이동은 근로자들의 이동 가능성(mobility)의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기에 양면적인 의미를 갖는다. 시장에서의 교섭력의 정도나, 보유한 숙련의 성격에 따라 스스로가 원하는 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근로자도 존재할 것이며, 이렇다 할 숙련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 종사했던 산업에서 퇴출되어 타 산업으로 부득이하게 이동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퇴출하는 경우 역시 존재할 것이다. 애초에 취업시 협소한 범위 내에 분포되는 인구그룹의 경우 다른 분야에서는 재취업의 기회조차 찾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화된다는 의미에서의 이동인지, 단지 수평적인 또는 상향의 이동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근로조건 등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상에서는 주 직장을 판별할 수 있는 정도가 제약되어 있으며, 소득정보를 대응시켜 함께 고찰하는 것 역시 어렵기에, 이동이 이루어지는 산업 및 종사상지위와 근로자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추측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먼저 산업 간의 이동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표 9>는 각 산업에 속한 인구비율을 1998년 6월, 2000년 6월, 2002년 6월, 2002년 12월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기간 동안의 대략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금융위기로 인해 최악의 경제상황이었던 1998년과 경기가 거의 회복된 시점이었던 2002년, 그리고 계절적인 변동이 반영될 2002년 12월의 비교를 통해 이 시기 산업비중의 변동을 살펴보았다. 주의할 점은 실업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인구 중의 각 산업종사인력의 비중을 나타냈기에, 고용인력만을 샘플로 한 비율과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실업이 감소하는 회복기였던 이 기간 동안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저학력과 고학력그룹에서 관찰되었다.

통상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1차산업에서 제조업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인력이동을 수반한다고 간주되는데, <표 9>에서 큰 흐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농·임·어·광업의 인력비중

〈표 9〉의 계속

(단위: %)

산업구분	여성 고졸 미만				여성 고졸~대학 중퇴				여성 대졸 이상			
	2000년		2002년		1998년		2002년		2000년		2002년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농업·임업·어업·광업	19.8	18.6	17.3	11.8	2.0	1.9	1.7	1.2	0.3	0.3	0.3	0.3
제조업	7.7	9.0	8.5	8.3	7.5	8.4	8.7	8.6	4.2	4.3	4.7	4.6
전기·가스·수도·건설업	0.8	0.8	0.8	0.8	1.1	0.9	0.9	0.9	1.1	1.4	1.4	1.4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15.6	16.1	15.9	15.4	19.9	21.8	23.4	23.5	12.7	13.0	13.1	12.5
운수업·통신업	0.2	0.3	0.3	0.3	1.0	1.0	1.1	1.1	1.4	1.7	1.7	1.6
금융·보험·부동산· 사업서비스업	1.9	2.1	2.5	2.5	5.9	5.7	5.4	5.5	6.3	8.0	8.4	8.5
교육서비스업	0.4	0.4	0.5	0.5	1.9	2.2	2.5	2.6	20.0	19.6	19.3	20.1
기타서비스업	4.2	5.4	5.4	5.0	6.4	6.9	8.5	8.2	11.0	12.2	13.0	13.2
실업	1.7	0.8	0.4	0.5	3.2	1.8	1.4	1.4	4.2	2.2	2.2	1.9
비경황	47.6	46.6	48.4	55.0	51.2	49.6	46.4	47.0	38.7	37.3	35.8	36.0
합계(명)	15,865	15,901	15,120	14,868	12,974	12,808	12,392	12,012	4,671	4,995	5,296	5,232

이 감소하고, 제조업, 전기·가스·수도·건설업의 비중에는 별반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제조업의 경우 1998년과 2002년 사이에 인력비율이 별반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는 각 세부 산업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운수업·통신업의 비중은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했다.

또한 전체 고용에 있어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변화하는 정도는 개별 인구그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은 남성고령인구에서 비중이 증가했으며, 남성 저학력그룹의 경우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의 비중이 작은 가운데, 기타서비스업과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비중은 감소했다. 이때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계절적 변동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그룹은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과 기타서비스업이 약간 상승했으나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은 감소했고,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약간 증가했다.

여성그룹에서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나 세부 그룹에 따라 증감의 방향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55~64세 그룹에서는 1차산업의 비중이 컸으나 크게 감소했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기타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한 것이 두드러졌다. 여성 저학력그룹은 주로 제조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 인력이 집중되어 여타 서비스업에의 종사비중은 미미했고, 별다른 비중변화 없이 기타서비스업과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으나 이 또한 계절적 변동폭이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여성중간학력그룹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기타서비스업의 비중 역시 증가했다. 반대로 여성 고학력그룹에서는 다른 그룹들과 달리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비중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과 기타서비스업의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여성그룹은 1차산업이 감소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증가하는 흐름이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서비스업에 있어서도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과 기타서비스업을 제외한 산업에서는 인력비중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 시기에는 김대일(2000b)에서

관찰되었던, 경제위기 직후 농수산업, 도
소매·숙박·음식점업의 순고용 증가와
제조업의 고용감소가 상당히 잦아들어,
산업별 고용비중이 변화한 양태를 나타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현상은 계
절적 변동분이다. 고령인구와 저학력인
구에서는 두드러지게 농·임·어·광업
종사의 계절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에
조사시점에 따라 경제활동성 전반에 있
어서와 인구그룹별 격차에 있어서 상당
한 차이가 예상된다.

<표 10>은 종사상지위상의 인력구성이
이 시기에 변화한 상황을 그룹별로 보여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임시·일용근로
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
와 상용근로자는 감소했으며, 다른 종사
상지위의 인력비중은 그다지 변화하지
않았다.

이를 세부 그룹별로 살펴보면, 이 시기
각 범주의 비중 변화가 그룹에 따라 상이
하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임
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전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남성그룹에서 소폭
감소한 반면, 여성그룹에서는 중간학력
그룹과 65세 이상 고령그룹을 제외하고
는 약간 증가하여 대조적인 현상을 나타
냈다. 또한 여성그룹의 경우 고령그룹과
중간학력그룹에서 자영자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반면, 남성그룹에서는 자영

자비중의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
고, 남성 저학력그룹에서는 오히려 자영
자비중이 감소했다. 저학력여성그룹과
고령여성의 경우 무급가족노동의 비중이
상당히 감소한 것 역시 두드러졌으며, 대
졸여성그룹과 여성 20~54세 그룹에서는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요약하자면, 주 노동자그룹으로 분류
되는 남성 20~54세 그룹의 경우에는 임
시·일용노동이 증가한 것 외의 뚜렷한
구성 변화가 눈에 띄지 않으나, 한계노동
자그룹의 경우 여성고령그룹의 자영자
증가, 남성 저학력그룹의 자영자 감소 등
상이한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여
성그룹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업기회가
많은 고학력그룹과 20~54세 그룹에서는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임시·일용노동
자의 증가 추세 속에서 일부그룹의 자영
자로의 이동, 상용근로자의 증가 등이 국
지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9>와 <표 10>은 1998년과 2002년
사이의 여러 시점들에서 각 산업과 종사
상지위가 인력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변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인력이
이동한 처음과 끝의 상태를 나타낼 뿐,
어떠한 이동을 통해 현재의 인력구조로
귀결되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예
를 들어, 기타서비스업과 임시·일용근
로자의 비중이 크게 늘었으나, 이들 노동

〈표 10〉의 계속

(단위: %)

	여성 고졸 미만				여성 고졸~대학 중퇴				여성 대졸 이상			
	1998년 6월	2000년 6월	2002년 6월	2002년 12월	1998년 6월	2000년 6월	2002년 6월	2002년 12월	1998년 6월	2000년 6월	2002년 6월	2002년 12월
종사상지위 구분												
상용근로자	2.8	3.2	3.3	3.2	10.5	8.8	9.5	9.5	28.5	28.4	29.9	29.7
임시, 일용근로자	16.0	19.2	19.0	17.9	18.6	22.6	24.7	24.5	16.7	20.9	21.0	21.5
고용주	0.9	1.0	1.0	0.9	1.7	1.8	2.3	2.2	2.6	2.1	2.3	2.1
자영자	11.5	12.5	12.5	11.0	5.8	6.6	7.1	7.1	5.4	5.2	5.4	5.4
무급가족종사자	19.5	16.8	15.3	11.5	9.0	9.0	8.7	8.3	4.1	3.9	3.4	3.4
실업	1.7	0.8	0.4	0.5	3.2	1.8	1.4	1.4	4.2	2.2	2.2	1.9
비경활	47.6	46.6	48.4	55.0	51.2	49.6	46.4	47.0	38.7	37.3	35.8	36.0
합계(명)	15,865	15,901	15,120	14,868	12,974	12,808	12,392	12,012	4,671	4,995	5,296	5,232

력이 어떤 산업이나 지위로부터 이동한 인력인지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인구그룹들은 이러한 움직임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비중변화의 이면에 서로 상쇄되는 양 방향의 움직임이 빈번히 있었는지의 여부 역시 파악할 수 없기에 노동시장 정착도가 낮은 그룹의 인구들이 주로 어떠한 이동경로 내지는 퇴출경로를 따르는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존재한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 11>과 <표 12>에서는 55개월간 샘플에 남았던 모든 근로자들이 행했던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집계하였다. 즉, 이들이 산업 간, 종사상 지위 간에 이동한 모든 경우를 기록하여, 이 중 전체 움직임의 3%를 초과하는 비중의 움직임을 표에 기입하였다. 개별 그룹에 대해 3%를 넘는 이동들을 모두 취합했기에, 표에 포함된 일부의 움직임은 어떤 그룹들에게는 미미한 비중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 작업을 통해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이 어떠한 이동경로를 따르는지, 어떤 상태변화들이 서로 상쇄되어 비중변화에 반영되지 않는지, 이러한 움직임들이 인구그룹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한계노동자그룹이 주로 겪게 되는 이동의 종류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11>에 따르면 이 시기 전체인구가 경험한 산업 간 이동 중 가장 빈번했던

것은 농·임·어·광업과 비경활의 양 방향 이동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비경활 간의 양 방향 이동이었다. 이 두 가지의 이동이 전체 이동의 24%를 차지했는데, 양 방향으로 모두 활발하게 일어났기에 이동의 빈도가 종사인구의 변화로 귀결되지는 않았다. 또한 이러한 이동은 앞의 <표 9>에서 관찰된 계절적 변동의 상당분을 설명해주는 것으로서 고령인구 그룹과 저학력그룹의 경우 농·임·어·광업과 비경활 간의 이동이 계절적 변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주 노동자그룹으로서 벤치마크 대상이 될 수 있는 남성 20~54세 그룹의 경우 비경활에서 전기·가스·수도·건설업으로, 전기·가스·수도·건설업에서 실업으로의 이동이 빈번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이와 달리 남성 고령그룹은 농·임·어·광업과 비경활 간의 양 방향 이동 외의 다른 움직임은 거의 찾을 수 없었고, 남성 저학력그룹의 경우에는 농·임·어·광업과 실업, 비경활 세 개의 범주 간의 이동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비경활이 연루되는 움직임의 빈도가 높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20~54세 그룹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비경활, 기타서비스업과 비경활 간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고, 55~64세 그룹은 기타서비스와 비경활 간의 이동, 고령그룹은 도소매·숙박·음식점과 비경활 간, 제조업과 비경활 간의 움직임이

<표 11> 산업 간 이동(1998~2002년)

(단위: %)

	전 체	남성 20~54세	남성 65세 이상	여성 20~54세	여성 55~64세	여성 65세 이상
농 → 비	12.9	4.3	34.0	8.6	28.1	37.2
비 → 농	11.2	3.9	28.3	7.7	24.4	31.0
도 → 비	5.7	2.8	2.0	9.1	4.6	3.9
비 → 도	5.5	2.8	1.7	8.9	4.2	3.4
제 → 비	4.8	2.6	2.5	7.7	3.3	3.7
비 → 제	4.6	2.3	2.2	7.8	2.8	3.8
비 → 실	3.9	5.4	0.7	4.6	1.1	0.3
실 → 비	3.2	4.3	0.9	3.6	1.2	0.3
전 → 비	3.2	7.2	2.5	0.9	0.9	0.5
비 → 전	2.9	6.4	2.4	0.9	0.8	0.5
기 → 비	2.9	1.4	2.6	3.6	3.4	2.5
비 → 기	2.8	1.2	2.6	3.8	3.5	2.3
금 → 교		0.1	0.0	0.1		
교 → 금		0.1	0.0	0.1	0.0	
실 → 전	1.7	5.0	0.3	0.3	0.1	
비 → 금	1.4	0.9	0.9	1.9	0.9	0.1
전 → 실	1.5	4.4	0.5	0.2	0.1	
농 → 전	1.2	2.3	1.7	0.2	0.7	0.2
기 → 금		0.4	0.1	0.3	0.1	0.1
전 → 농	1.1	1.9	1.6	0.2	0.6	0.2
금 → 기		0.3	0.0	0.3	0.1	0.0
교 → 비	1.0	0.5	0.6	1.6	0.2	0.1
비 → 교	0.9	0.4	0.5	1.8	0.2	0.1
합 계	72.4	60.9	88.6	74.2	81.3	90.2
총이동횟수	65,748	17,806	2,392	27,423	8,108	3,492

<표 11>의 계속

(단위: %)

	남성 고졸 미만	남성 대졸 이상	여성 고졸 미만	여성 고졸~ 대학 중퇴	여성 대졸 이상
농 → 비	14.3	3.9	21.6	3.8	1.2
비 → 농	12.3	3.2	18.8	3.7	1.0
도 → 비	2.0	3.3	6.2	10.9	7.5
비 → 도	1.9	2.9	5.8	11.1	7.2
제 → 비	2.1	2.0	5.9	8.0	3.8
비 → 제	1.9	1.9	5.7	8.3	4.1
비 → 실	2.7	6.8	1.9	6.4	7.4
실 → 비	2.6	5.7	1.7	4.6	6.1
전 → 비	7.8	2.6	1.1	0.5	0.6
비 → 전	6.8	2.1	1.1	0.6	0.4
기 → 비	1.8	3.0	3.1	3.9	5.1
비 → 기	1.7	2.1	3.2	4.1	5.6
금 → 교	0.0	0.4	0.0	0.1	0.4
교 → 금	0.0	0.4	0.0	0.1	0.3
실 → 전	4.4	2.7	0.2	0.2	0.3
비 → 금	0.7	1.6	0.9	0.6	4.0
전 → 실	4.2	2.3	0.1	0.2	0.2
농 → 전	4.1	0.5	0.5	0.0	
기 → 금	0.2	0.7	0.2	0.3	0.6
전 → 농	3.5	0.4	0.4	0.0	
금 → 기	0.2	0.6	0.2	0.2	0.5
교 → 비	0.1	3.4	0.2	2.1	6.9
비 → 교	0.1	2.0	0.2	2.5	7.0
합 계	75.4	54.5	79.0	72.2	70.2
총이동횟수	13,698	2,842	25,810	11,684	2,159

주: 약자가 의미하는 바는 농(농·임·어·광업), 비(비경제활동), 도(도소매·숙박·음식점업), 제(제조업), 실(실업), 전(전기·가스·수도·건설업), 기(기타서비스), 금(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교(교육서비스업)임.

〈표 12〉 종사상지위 간 이동(1998~2002년)

(단위: %)

	전 체	남성 20~54세	남성 65세 이상	여성 20~54세	여성 55~64세	여성 65세 이상
임 → 비	13.6	9.3	9.0	17.8	12.0	13.7
비 → 임	13.6	8.8	8.3	18.5	11.6	13.2
자 → 비	7.4	5.8	33.4	3.8	6.7	13.9
무 → 비	7.0	0.6	0.6	8.4	19.4	17.7
비 → 자	6.6	5.3	27.5	3.7	6.1	10.9
비 → 무	6.1	0.6	0.8	7.6	16.3	14.5
실 → 임	5.1	9.0	0.8	4.6	1.2	0.2
임 → 실	4.0	7.1	0.9	3.4	1.1	0.1
비 → 실	3.8	5.1	0.7	4.5	1.1	0.3
자 → 임	3.5	4.5	4.7	2.1	3.6	3.1
임 → 자	3.3	4.1	4.6	2.1	3.4	3.7
실 → 비	3.1	4.1	0.9	3.5	1.1	0.3
임 → 상	2.8	4.5	0.8	3.0	0.5	0.1
상 → 임	2.1	3.2	0.7	2.2	0.6	0.1
상 → 비	1.7	2.2	0.8	1.4	0.4	0.1
무 → 임	1.6	0.5	0.1	2.0	4.1	2.3
임 → 무	1.5	0.4	0.1	1.8	4.1	1.9
자 → 고	1.3	3.3	0.7	0.5	0.1	0.2
고 → 자	1.2	3.1	0.7	0.4	0.2	0.2
합 계	89.3	81.5	96.1	91.3	93.6	96.5
총이동횟수	68,493	18,871	2,397	28,450	8,503	3,590

<표 12>의 계속

(단위: %)

	남성 고졸 미만	남성 대졸 이상	여성 고졸 미만	여성 고졸~ 대학 중퇴	여성 대졸 이상
입 → 비	11.9	9.8	14.8	19.4	16.1
비 → 입	10.9	9.3	14.7	20.5	16.8
자 → 비	14.8	10.4	6.5	3.1	3.1
무 → 비	0.4	0.5	14.8	5.9	3.6
비 → 자	12.9	9.1	5.7	3.2	3.0
비 → 무	0.3	0.5	12.5	5.7	3.9
실 → 입	7.2	7.4	2.5	5.0	6.2
입 → 실	6.3	5.9	2.1	3.5	4.3
비 → 실	2.7	4.4	1.8	6.2	7.1
자 → 입	6.9	4.9	3.0	1.7	1.4
입 → 자	6.4	4.6	2.9	1.7	1.7
실 → 비	2.6	3.6	1.6	4.5	5.8
입 → 상	2.2	3.6	1.3	3.4	5.7
상 → 입	1.7	2.7	1.0	2.5	5.3
상 → 비	1.2	2.5	0.6	1.7	3.6
무 → 입	0.2	0.4	3.3	0.9	0.6
입 → 무	0.2	0.3	3.0	1.0	0.4
자 → 고	1.5	2.6	0.3	0.7	0.6
고 → 자	1.5	2.5	0.3	0.5	0.3
합 계	91.8	85.0	92.7	91.1	89.5
총이동횟수	13,755	3,179	26,235	12,053	2,255

주: 약자가 의미하는 비는 입(임시·일용근로자), 비(비경제활동), 자(자영자), 무(무급가족종사자), 실(실업), 상(상용근로자), 고(고용주)임.

두드러졌다. 여성 저학력그룹의 경우 비경활과 기타서비스 간의 이동이 두드러졌고, 중간학력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비경활 간의 이동, 비경활과 기타서비스 간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여성그룹으로서는 유일하게 고학력그룹에서 실업이 연루된 움직임이 빈번해지는데, 비경활에서 실업으로, 비경활과 교육서비스 간, 비경활과 기타서비스 간, 비경활과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간의 움직임의 빈도가 높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그룹의 움직임은 대부분 반대방향으로의 움직임들과 근사한 비중으로 진행되고 있어 동일그룹 내의 구성원들의 경우 취업기회나 퇴출경로가 일정한 부문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집중 양상은 그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 노동력그룹과 구별되는 남성고령그룹과 남성 고학력그룹의 경우 대부분의 움직임이 농·임·어·광업과 실업, 비경활에 한정되어 진행되며, 여성그룹은 비경활과 연관된 움직임이 많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나, 기타서비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빈번한 취업과 퇴출, 고령여성의 제조업 이동 등이 눈에 띄었다. 또한 앞에서의 비중 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 고학력그룹의 경우 다른 여성그룹과는 달리 실업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12>에 나타난 개별 그룹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성 20~54

세 그룹에서는 임시·일용근로자와 비경활간의 이동이 적은 것이 특징적이었고, 여성 20~54세 인구는 전체 인구그룹의 움직임과 매우 근사한 경로와 빈도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남성 고령그룹의 종사상지위 이동은 자영자와 비경활 간, 임시·일용과 비경활 간, 자영자와 임시·일용근로자 간 등 삼각형의 경로만으로 구성되었다. 여성 고령그룹의 경우에는 남성고령그룹의 이동종류에 무급가족노동과 비경활 간 이동이 추가되었다. 여성 55~64세 그룹은 자영자가 연루되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무급가족노동과 비경활 간, 임시·일용노동과 무급가족노동 간의 움직임이 큰 것이 특징으로 관찰되었다.

학력별 구분에서는 남성 고학력그룹의 경우 비경활에서 실업으로의 이동, 상용직에서 비경활로의 이동 빈도가 높았으며, 비경활에서 임시·일용직으로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다른 인구그룹에 비해 상용노동이 연루되는 이동의 빈도가 높다는 것이 남성 고학력그룹의 특징이었는데, 한계노동자그룹의 경우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었다. 여성 저학력그룹의 경우에는 무급가족노동과 비경활 간, 비경활에서 임시·일용직으로의 움직임 빈도가 높았고, 여성 중간학력그룹은 임시·일용과 비경활 간의 움직임과 비경활에서 실업으로의 움직임 빈도가 높아 구직이 활발해진 것을 나타냈다. 고

학력여성의 경우 실업이 연루된 움직임이 빈번한 것이 특징이었다. 비경활과 임시·일용 간의 이동 빈도도 높았으나, 실업에서 임시·일용, 실업에서 비경활로, 임시·일용과 상용근로자 간 이동 등 노동시장 정착도 면에서 다른 여성그룹과는 차이를 보였다.

Ⅶ. 결 론

한계노동력그룹에 대한 관심은 고령화의 진전 및 복지욕구의 증가와 맥을 같이 한다.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하는 인구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고양하는 한편으로, 다양한 그룹을 경제활동에 참가시켜 사회통합의 목표에도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이질적인 인구 그룹들로 이루어진 한계노동력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개별 인구그룹의 경제활동수준이 다르고, 비경제활동인구로 퇴출하거나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려는 성향에도 차이가 있다면, 이들에게 맞는 정책수단을 고안하고 적용하여, 이들을 경제활동으로 끌어내고, 근로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데 제약이 되는 장벽들을 낮추어

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이들 그룹이 반응하는 방향과 정도를 파악하는 것 역시 이들이 주로 향하는 부문과 인력수요가 존재하는 부문을 확인하여 대처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문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이후 전반적인 실업률이 감소한 시기에 있어 실업률이 감소하는 정도에도 그룹별로 차이가 존재하여 남성그룹이나 저연령그룹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함께 진행된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역시 그룹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을 제외한 남성그룹의 경우 오히려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했으며, 55~64세 연령그룹을 제외한 여성그룹은 상당한 폭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가정되는 실업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역의 상관관계는 그룹에 따라 실현 여부가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찰결과는 실업에 있어서나 경제활동참가율에 있어서나 경기변화에 대한 반응도가 인구그룹에 따라 상이한 것을 의미하는데, 인구그룹의 비활동성(inactivity)에 있어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미취업상태가 비경제활동상태에서 벗어나는 이동성(turnover)과 지속기간을 관찰해본 결과 전반적인 고용수준이 낮은 한계그룹에 있어 이동성이 낮고 지속기간이 길어 비활동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비활동성의 수준이 유럽보다는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를 비활동성 함정(inactivity trap)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한계소득세 감소나 근로연계수당의 도입, 미취업상태의 수당제한 등 근로유인 증대를 주로 고심하는 유럽의 경우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러한 수단의 시급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일자리를 구한 사람이 다시 미취업상태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현저히 짧다는 것은 정책수단의 초점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유인을 갖고 있으나, 이들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퇴출하고 있다면, 이들의 근로생활에 제약이 되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그룹별로 찾아내어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사와 육아부담을 완화할 장치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며, 고령근로자의 경우 고용이나 직업훈련관행, 사용자의 인력관리정책 등에도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과 변용이 필요하다.

특히 다항로지 분석에서 나타난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그룹별 차이에서 보듯이 여성이나 저학력인구가 퇴직시 실업상태로 이동하려 하지 않으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쉽게 빠져나가는 반면, 고

학력인구는 실업에 머무르는 현상은 실업대책과 경제활동 증진책이 보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동시에 대상이 되는 그룹을 분명히 파악하여 차별적인 수단을 이용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한계노동력이 주로 어디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어디로 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력의 이동상황을 파악한 후 이와는 차별되는 한계노동력의 특성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산업 간, 종사상지위 간의 인력이동 상황은 전반적으로 1차산업의 축소와 서비스업의 확대, 임시·일용 근로자의 증가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흐름이 각 그룹에서 시현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로의 진입이 제한되며, 비경제활동상태로 빈번하게 퇴출하는 등 동태적인 경제의 조정과정에서 한계노동력그룹이 배제되는 부분이 존재하며, 동시에 이들 그룹은 완충부분으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계노동력의 노동시장 내 상대적인 위치를 평가함에 있어 전반적인 경제구조 변화 역시 심층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한계노동력그룹은 실업이라는 범주를 거치지 않고 노동

시장에서 퇴출하거나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정책과 구분되는 경제활동참가제고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제전반의 완충역할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농·임·어·광업과 비경활인구 간의 이동으로서 계절적 변동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조사시점에 따라 큰 차이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에 경제활동성 수준을 가늠함에 있어 계절적 변동분을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동시에 산업구조적 특성에 의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간의 경제활동성 비교에 있어서도 농·임·어·광업, 건설업 등 산업별 비중의 차이를 인구그룹 간 차이와 함께 연동하여 고찰하는 과정이 크게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관찰과 분석의 결과를 일관된 형태로 간단히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추출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일 것이나, 본고는 경제활동참가를 제고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선적인 정책대상이 될 한계노동력그룹의 다양한 면을 상세히 고찰하여 주 노동력그룹과의 차이를 파악하고 전반적 노동시장에 관한 진단과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향후 한계노동력그룹의 잠재적 노동공급능력을 최대한 묶어내고, 이를 통해 재정부담의 완화와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고도화에 따르는 인력수급 전망과 함께, 그 속에서 개별 인구그룹의 특성을 반영한 한계노동력 경제활동제고정책이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되고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대일, 『경제위기 이후의 고용창출 유형분석』, 유경준(편저),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비봉출판사, 2000a.
- _____, 『경제위기와 실업의 동태적 변화』, 유경준(편저),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비봉출판사, 2000b.
- _____, 『한계적 경제활동 참가자와 실업』, 한국금융연구원 정례세미나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발표자료, 2000c.
- 앤 올로프(Ann Orloff), 『젠더와 시민의 사회적 권리: 젠더 관계와 복지국가에 대한 비교 분석』,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0.
- 유경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00~2010)』, 유경준(편저),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비봉출판사, 2000.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2.
- Ben-Porath, Yoram, “Labor-Force Participation Rates and the Supply of Labor,”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1, No. 3, May-Jun. 1973.
- Blau, David M., “Labor Force Dynamics of Older Men,” *Econometrica*, Vol. 62, No. 1, Jan. 1994.
- Burtless, G. and R. Moffitt, “The Joint Choice of Retirement Age and Postretirement Hours of Work,” *Journal of Labor Economics* 3, Apr. 1985.
- Cain, Glen G., “Unemployment and the Labor-Force Participation of Secondary Worker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20, No. 2, Jan. 1967.
- Fuchs, Victor R., “Self-Employment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Older Male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17, No. 3, Summer 1982.
- Goldin, Claudia, “Life-Cycle Labor-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Historical Evidence and Implication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7, No. 1, Jan. 1989.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3.
- Royalty, Anne Beeson, “Job-to-Job and Job-to-Nonemployment Turnover by Gender and Education Level,”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6, No. 2, Apr. 1998.
- Ruhm, C., “Bridge Jobs and Partial Retire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8, Oct. 1990.